

KIA ‘10번 타자’ 응원에 선수도 짜릿했다



지난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두산을 꺾고 V11을 달성한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팬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잠실=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타이거즈 V11’ 감동의 여정 함께 한 팬들
흠 첫 100만 관중 돌파…원정경기도 구름 관중
두산팬에 밀리지 않았던 잠실야구장 붉은 물결
안치홍 “오른쪽 왼쪽~응원 열기에 소름 돋아”**

열정적인 10번 타자들이 함께한 ‘호랑이 군단’의 11번째 가을 전설이다. KIA 타이거즈는 8년 만에 치른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에서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남겼다. KIA 에이스 양현종의 122번째 공에 헛돌던 두산 양의지의 방망이, 9회초 대타로 나온 나지완의 극적인 홈런, 김세현의 짜릿한 삼진, ‘만루 사나이’ 이범호의 그랜드슬램 그리고 다시 마운드에 등장한 양현종이 두 손을 번쩍 들던 마지막 아웃카운트 등등. 팬들을 환호하게 만든 짜릿한 장면의 주인공들도 감동의 순간을 경험했다. 한국시리즈를 치르는 동안 KIA 선수들은 팬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예매 전쟁에서 생존한 KIA 팬들은 챔

피언스필드는 물론 잠실구장을 가득 채우며 5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만들었다. 두산 안방인 잠실구장에서 치른 3경기에서도 KIA 팬들은 수와 응원 열기에서 홈팀에 밀리지 않았다. 마무리 김세현이 “잠실 구장의 반이 흰색이고, 반이 붉은색이다. 팬들 응원이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낼 정도로 KIA 선수들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큰 힘을 얻었다. 특히 안치홍은 “소름이 돋았다”고 말할 정도로 팬들의 응원에 감동을 받았다. 이번 한국시리즈 응원전의 최고 장면은 안치홍의 타석에서 연출됐다. KIA 팬들은 서한국 응원단장의 지휘에 따라 안치홍의 응원이 구호 ‘오른쪽 왼쪽’에 맞춰 클래퍼(응원부채)를 앞뒤로 뒤집는 응원을

펼쳤다. 빨간색 면과 노란색 면을 번갈아 들어 보이면서 KIA 팬들로 가득 찬 잠실 원정석은 노란 물결과 빨간 물결이 교차했다. 외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뒤늦게 클래퍼 응원 동영상상 접한 안치홍은 “영상을 보고 소름 돋았다. 팬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다. 응원 소리는 들리지만 타석에 있을 때 한니까 그런 장면을 직접 볼 수 없었다”며 “팬들의 응원 장면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팬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치홍은 또 “다른 팀에서 온 선배들도 KIA 팬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더라”며 “팬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시면 더 집중하게 되고 힘이 난다. 팬들의 응원 덕분에 우승까지 하게 된 것 같다”고 다시 한번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시리즈에서만 국한된 10번 타자들의 활약은 아니었다. KIA 팬들은 선수들의 1위 행보에 발맞춰 올 시즌 최고의 흥행 성적을 썼다. 2017 시즌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홈 72경기에 102만4830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인구 약

150만의 광주에서 ‘100만 관중’이라는 놀라운 기록이 작성됐다. 원정경기장에도 구름 관중이 몰리는 등 KIA는 성적도 흥행도 1위였다. 김기태 감독을 필두로 한 KIA 선수단은 지난 30일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 지

은 뒤 관중석을 향해 큰절을 하며 올 시즌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KIA의 그라운드와 관중석이 어우러진 감동의 2017시즌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기태 감독 3년 20억 재계약

2017시즌 통합 우승을 이룬 김기태(사진) 감독이 3년 더 ‘호랑이 군단’을 맡는다. KIA 타이거즈가 1일 김기태 감독과 3년간 총액 20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에 재계약을 했다. 김 감독은 지난 2014년 10월 선동열 감독에 이어 타이거즈의 8대 감독으로 취임하며, 고향팀 유니폼을 입었다. 계약금 2억5000만원, 연봉 2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에 3년 계약을 했던 김 감독은 임기 마지막인 올 시즌 통합우승을 일구며 재계약에 성공했다. ‘형님 리더십’으로 타이거즈의 ‘동행’을



지휘한 김 감독은 “시즌 내내 몸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배려해 준 구단에 감사하다”면서 “무엇보다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모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말했다.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팬 덕분이다.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강한 팀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이젠 亞프로야구챔피언십

대표팀 5일 소집

16일 오후 7시 한·일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 출전할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주요 일정이 확정됐다. 대표팀은 4일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에서 열린 공식 소집 및 선수단 오리엔테이션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5일부터 13일까지는 서울 잠실구장과 고척 스카이돔에서 훈련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5일 잠실구장에서 첫 훈련을 소화하고, 6일부터 13일까지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훈련과 연습경기를 병행한다.

대표팀은 8일과 10일 오후 2시 넥센 히어로즈와 두 차례 연습경기를 치르고, 12일 오후 6시에는 경찰야구단과 연습경기를 벌일 예정이다. 국내 훈련과 연습경기를 마친 대표팀은 14일 오전 9시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대회 공식 일정이 시작하는 15일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오후 4시부터 공식 연습을 하며, 이에 앞선 오후 3시 30분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개국 감독이 기자회견에 나선다.

대표팀의 첫 경기는 16일 오후 7시 한·일전이다. 17일 오후 7시에는 대만과 예선 2경기를 치른다.

예선 1위 또는 2위에 오를 경우 18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9일 오후 6시 도쿄돔에서 결승전을 벌인다.

대표팀은 20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9개월만의 복귀 우즈
우승 가능성 낮아”**

베테업체, 배당률 50대 1

9개월 만에 필드에 복귀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2·미국)의 우승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즈는 오는 30일 바하마에서 개막하는 히어로 월드챌린지에서 출전하겠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2월 유러피언투어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1라운드를 마치고 허리 통증으로 기권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베테업체는 우즈의 우승 가능성을 낮게 봤다. 영국 베테잉사이트 스카이벳은 우즈가 히어로 월드챌린지에서 우승할 경우 배당률을 50대 1로 봤다.

이는 1달러를 베테잉 우즈가 우승하면 50달러를 받는다는 의미로 배당률이 높을수록 우승 확률은 낮다는 의미다.

우즈의 우승 배당률은 이번 대회 참가하는 18명의 선수 중 가장 높다. 조던 스피스와 터스틴 존슨이 6대 1로 가장 낮았다.

우즈는 지난해에도 이 대회를 통해 16개월 만에 필드에 복귀했다.

당시 웨스트게이트 라스베이거스 슈퍼 북은 우즈의 우승 배당률을 40대 1로 책정했다. 그리고 우즈는 당시 17명 중에서 15위를 차지했다.

스카이벳은 우즈가 이번 대회에서 외이어 두 외이어 우승을 할 경우 배당률을 300대 1로 봤다. 톱 10안에 들 경우 배당률은 11대 4로 책정했다.

톱 5안에 들 경우 배당률은 7대 1로, 1라운드에서 보기 없는 플레이를 할 경우 배당률은 16대 1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LA 기사회생…월드시리즈 7차전서 결판

휴스턴에 3-1 역전승

올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결국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에게 3-1 역전승을 거뒀다. 7전 4승제 월드시리즈에서 2승 2패 후 5차전을 내줘 베팅 끝에 몰렸던 다저스는 불펜진의 분발에 힘입어 기사회생했다.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29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 희망을 이어갔다. 반면 1962년에 45구경 콜트(the Colt . 45s)로 출발해 1965년부터 애스트로스라는 이름을 쓴 휴스턴은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 꿈을 7차전으로 미뤘다. 7차전에는 다저스가 다르빗슈유, 휴스턴은 랜스 매켈러스가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다저스 승리의 원동력은 불펜진이었다. 이를 전 5차전(12-13패)에서 4-0, 7-4, 8-7

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와 함께 무너졌던 불펜진은 이날은 견고함을 되찾으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다저스는 선발 리치 힐(4%이닝 1실점) 이후 브랜던 모로(1이닝)-토니 왓슨(½이닝)-마에다 겐타(1이닝)-켄리 안선(2이닝)이 4%이닝 무실점을 합작했다. 휴스턴은 다저스보다 1개 더 많은 6안타를 쳐내고도 5회 2사 만루, 6회 2사 1, 2루, 7회 2사 1, 3루의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휴스턴은 3회 초 2사 후 조지 스프링어의 우월 솔로홈런으로 가법계 선취점을 뽑았다. 이후 5회 초에는 브라이언 매캔의 우전 안타와 마윈 곤살레스의 좌월 2루타로 무사 2, 3루의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했다. 힐이 이후 두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자 로버츠 감독은 스프링어를 상대로 고의사구를 지시한 뒤 투수를 힐에서 모로로 교체했다. /연합뉴스

모로는 앞서 5차전에서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4피안타(2피홈런) 4실점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모로를 믿었고, 월드시리즈 6경기에 개근한 모로는 2사 만루에서 알렉스 브레그먼을 내야 땅볼로 처리하고 사령타의 신뢰에 보답했다. 다저스는 로버츠 감독의 발 빠른 투수 교체로 6회 초 2사 1, 2루 위기까지 넘겼다. 불펜진이 힘을 내자 타선의 응징력도 살아났다. 휴스턴 선발 저스틴 벌랜더에게 5회까지만 1안타만 뽑아내고 삼진을 8개나 헌납했던 다저스 타선은 6회 말 2점을 뽑으며 전세를 뒤집었다. 다저스는 7회 말 즉피터슨이 바뀐 투수 조 머스그로브를 상대로 좌월 솔로홈런을 터뜨려 점수 차를 2점으로 벌렸다. 잠그기에 들어간 다저스는 8회부터 마무리 안선을 올렸다. 안선은 2이닝을 삼진 3개를 곁들여 퍼펙트로 틀어막고 팀을 7차전으로 안내했다. /연합뉴스

AFC U-19 챔피언십 본선 티켓 잡아라

U-18 대표팀 오늘 안방서 브루나이와 예선 첫 경기

18세 이하(U-18) 축구 대표팀이 안방에서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본선 티켓 사냥에 나선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18 대표팀은 2일 오후 경기도 파주스타디움에서 F조 예선 첫 상대인 브루나이와 만난다. 이번 예선은 내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FC U-19 챔피언십 본선 진출국을 가리기 위한 조별 예선으로, 풀리그를 통해 10개 조 1위 팀과 조 2위 중 상위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 외에 4일 인도네시아, 6일 동티모르, 8일 말레이시아 등 F조 상대들과 차례로 맞붙는다. 이 가운데 동티모르는 ‘동티모르의 히딩크’로 불리는 김신환 감독이 이끈다. 네 팀 모두 강팀은 아니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U-22 대표팀도 지난 7월 AFC U-23 챔피언십 예선에서 동티모르를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0-0으로 비긴 바 있다.

정정용 감독은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가 앞서지만 상대 팀들은 우리를 이기기 위한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 투지를 갖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잘 대비해 맞춤형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필승 의지를 드러내며 “2년 뒤 월드컵을 생각하면서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한 단계씩 나아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선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으로 향하는 첫 여정으로도 볼 수 있다. 스페인 발렌시아 유소년팀에서 뛰는 이강인과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 예정인 정우영(인천 대건고)을 비롯해 전세진(수원 매탄고), 오세훈(울산 현대고), 조영욱(고려대), 김정민(광주 금호고) 등이 출격한다. 지난 31일 먼저 열린 F조 경기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동티모르와 브루나이를 상대로 1승씩을 챙겼다. /연합뉴스